

# 박찬호 도루왕·양현종 최연소 150승 등 기록 '풍성'



## <중> 아쉬움 속 빛난 선수들

4년의 기다림이 하루 만에 끝나버린 '아쉬움'의 시즌이었지만 빛나는 순간·선수들은 있었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기대치에는 부족했던 10.5경기 차 5위를 기록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허무한 2-6패를 기록하면서 2차전 기회는 얻지 못했다. 정규·포스트시즌 모두 아쉬움이 진하게 남지만 유격수 박찬호는 팬들의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선수가 됐다. 시즌 초반 실수 연발로 자존심은 구겼지만 특급 수비로 팀의 유격수 자리를 굳게 지켰다. 타석에서도 한층 매서워진 타격을 보여주면서 130경기에 나와 0.272의 타율과 함께 4홈런, 45타점을 기록했

이의리 10승 차세대 에이스로 정해영 최연소 50 세이브 기록 최형우 1400타점·2100안타

다. 무엇보다 생애 첫 40도루 고지를 넘는 등 42차례 베이스를 훔치는 데 성공하면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도루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올 시즌 팀 유일의 '타이를 훔다'인 박찬호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KIA의 자존심을 지켰다. 프로 첫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나선 박찬호는 3안타 행진을 했고, 특유의 근성 있는 플레이로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고 도루도 기록했다. '특급 루키' 김도영은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시범경기에서 거침없는 타격으로 고졸 신인 첫 타격 1위에 오른 김도영은 타이거즈 역사상 첫 고졸 신인 개막전 톱타자 타이틀도 차지했다.

야수진의 동반 부진 속, 부담 많은 봄날은 보냈지만 매 경기 성장세를 보이면서 '될성부른 떡잎'의 면모를 보여줬다. 3개의 홈런과 13개의 도루도 기록했고, 올 시즌 최정전에서 0-7로 뒤진 9회말 팀의 침묵을 깨는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19번째 타점을 올리기도 했다. 마운드에서는 이의리가 KIA의 차세대 에이스로 기반을 다졌다. 지난 시즌 KBO 입성과 동시에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이의리는 손가락 물집으로 스프링캠프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지만, 4월 6일 한화전을 시작으로 10월 4일 LG전까지 29경기에서 나와 3.86의 평균자책점으로 10승 10패를 기록했다. 154이닝을 소화한 이의리는 제구에서 아쉬움은 남겼지만 한층 발전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5이닝 2실점의 승리투수가 되면서 프로 두 번째 시즌에서 '10승 투수'가 됐다. 지난 시즌 최연소 30세이브를 달성했던 마무리 정해영은 올 시즌에는 최연소 50세이브(20세 9개월 9일)를 기록했다. 또 32세이브를 수확하면서 팀

첫 2년 연속 30세이브 기록도 만들었다. 베테랑들의 기록행진도 계속됐다. 타석에서는 '최고참' 최형우가 1400타점(통산 2번째)을 시작으로 2100안타(10번째), 450 2루타(3번째), 350홈런(6번째), 1900경기 출장(24번째), 1000 4구(5번째), 1100 4사구(6번째), 15년 연속 10홈런(4번째), 3700루타(3번째) 기록을 채웠다. 새로 타이거즈 일원이 된 나성범도 기록을 더해갔다. 나성범은 올 시즌 500 4사구(통산 83번째), 1400안타(52번째), 300 2루타(30번째), 900타점(30번째), 2500루타(38번째), 100도루(102번째), 1200경기 출장(111번째), 3년 연속 150안타(20번째), 900득점(28번째)을 기록했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의 기록 행진이 펼쳐졌다. 2100이닝(6번째)을 넘은 양현종은 1700탈삼진(통산 3번째), 150승(통산 4번째·최연소 34세 2개월 18일), 9년 연속 100이닝(12번째), 8시즌 연속 10승·100탈삼진(3번째), 8시즌 연속 150이닝

(3번째), 1800탈삼진(2번째), KBO 최초 8시즌 연속 170이닝,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 등을 작성했다. 또 KIA는 4월 16일 창원 NC전에서 통산 86번째 선발 전원 안타·득점 기록을 만들었고, 8월 19일 광주 NC전에서는 KBO 첫 번째 팀 4700도루를 채웠다. 9이닝 종료 경기 최초 27타자 연속 무출루(5월 10일 광주 KT전), 세 번째 무안타 타자일순(6월 25일 잠실 두산전), 최다 득점자 승리(7월 24일 사직 롯데전·23점 차) 등의 진기록도 작성했다. 그리고 10월 7일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날로 남았다. '타이거즈 홈런타자' 나지완의 은퇴식이 펼쳐진 이날 KIA는 황대인, 최형우, 김호영의 홈런 세 방으로 KT에 11-1 대승을 거두고, 4년 만의 포스트시즌을 확정했다. 29년 유니폼을 입은 동료들의 활약 덕분에 나지완은 8회말 '마지막 타석'에 섰고, 좌익수로도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최고의 은퇴식과 은퇴 경기를 치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2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카림 벤제마(35·레알 마드리드)가 남자선수 부문을 수상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발롱도르는 프랑스의 축구 전문지 프랑스풋볼이 주관하는 상으로, 한 시즌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한다. /연합뉴스

# 벤제마 발롱도르 품었다

## 손흥민 11위 아시아 선수 최고 기록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가 생애 첫 발롱도르를 품에 안았다. 벤제마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2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선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발롱도르는 프랑스 축구 전문 잡지인 프랑스풋볼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된다. 벤제마는 전 세계 100명의 기자단 투표에서 2위 사디오 마네(바이에른 뮌헨), 3위 케빈 데브라워

너(맨체스터 시티) 등을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2021-2022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우승을 견인했다. 35살의 베테랑인 그는 UCL에선 15골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고, 라리가에서도 27골을 몰아쳐 득점 1위를 기록했다. 올해 4위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FC 바르셀로나), 5위엔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 살라흐와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공동 득점왕(23골)에 오른 손흥민(토트넘)은 11위로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손흥민은 2019년 처음으로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려 30명 중 22위에 오르며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를 달성한 바 있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후보에 든 그는 자신의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해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7차례(2009·2010·2011·2012·2015·2019·2021년) 발롱도르를 수상한 메시는 2005년 이후 17년 만에 30인 후보 명단에 제외됐다.

후남두는 20위에 그쳤다. 지난 시즌 폴란드 축구 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56경기에 출전해 57골을 몰아친 레반도프스키는 2년 연속 최고의 골잡이에게 주는 '골트 볼러 상'을 받았다. 최고의 골키퍼가 받는 '야신상'은 티보 쿠르투아(레알 마드리드)가, 신인상 격인 '코파 트로피'는 파블로 가비(FC 바르셀로나)가 거머쥐었다. 올해의 클럽상은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에 돌아갔고, 여자 발롱도르는 2년 연속 알렉시아 푸테야스(FC바르셀로나)가 수상했다. 마네는 올해 처음 제정된 사회공헌상 '소크라테스 트로피'를 받았다. /연합뉴스

## 광주FC 이정효, K리그2 '최우수감독상' 받나

광주FC의 다이렉트 우승을 지휘한 이정효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을 노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8일 '하나원큐 K리그2022 대상 시상식'의 개인상 후보선정위원회를 열고 올 시즌 K리그1과 K리그2의 최우수감독상, 최우수선수상(MVP), 영플레이어상, 베스트11 후보를 발표했다. 연맹 기술위원, 취재기자, 해설위원 등으로 구성된 후보선정위원회는 각 구단이 제출한 부문별 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기록 지표와 활약상을 고려

해 4배수의 후보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각 구단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 투표를 진행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수상자는 오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K리그2022 대상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K리그2 최우수감독상 후보에는 '우승 사령탑' 이정효 감독을 비롯한 이민성(대전), 이영민(부천), 이우형(안양)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정효 감독의 수상이 유력하다. 이정효 감독은

프로 사령탑을 맡은 첫 시즌에 25승 11무 4패(승점 86)의 성적표를 작성하면서 광주의 우승을 이끌었다. 25승과 승점 86은 K리그2 신기록이다. 광주의 압도적인 질주를 지휘한 이정효 감독은 4월 4승 1무, 9월 4전 전승을 달성하면서 두 차례 '이달의 감독상'도 수상했다. 이정효 감독이 시상대에 오르면서 지난 2019년 박진섭 감독에 이어 광주의 두 번째 수상이다. 40경기를 32실점으로 막으면서 우승 중심에 선 수비수이자 '주장'인 안영규는 MVP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안영규는 유강현(충남아산), 조유민(대전), 티아고(경남)와 MVP 트로피를 놓고 경쟁을 펼친

다. 올 시즌 28경기에서 9골 1도움을 기록한 염지성은 이상민(충남아산), 임덕근(대전), 조현택(부천)과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노린다. 베스트일레븐은 각각 골키퍼 1명, 수비수 4명(좌측 1명, 중앙 2명, 우측 1명), 미드필더 4명(좌측 1명, 중앙 2명, 우측 1명), 공격수 2명으로, 포지션별 4배수 후보가 각축을 벌인다. 광주에서는 골키퍼 김경민, 수비수 이요뜸(좌측)·안영규(중앙)·두현석(우측), 미드필더 박한빈·이승민(이상 중앙)·염지성(우측), 공격수 헤이스가 수상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PGA 투어 더 CJ컵 20일 개막 김주형·임성재·이경훈 등 출전



김주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총상금 1천50만 달러)이 20일부터 나흘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질랜드의 콩가리 골프클럽(파71·7655야드)에서 열린다. 2017년 창설된 더 CJ컵은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PGA 투어 정규 대회다. 2019년까지 제주도에서 열렸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2017년과 2019년에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우승했고, 2018년에는 브룩스 켈카(미국)가 정상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는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역대 챔피언 명단을 장식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도 '디펜딩 챔피언' 매킬로이를 비롯해 토머스,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등이 출전하며 온 람(스페인), 제이슨 데이(호주) 등 한때 세계 1위에 올랐던 선수들이 우승에 도전한다. 또 콜린 모리카와, 맥스 호머,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 등 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엔트리에 포함됐다. 2021-2022시즌 페덱스컵 상위 30명 가운데 23명이 이번 대회에 나온다. 한국 기업인 CJ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만큼 한국 선수들도 여느 PGA 투어 대회보다 더 많은 13명이 출전한다. PGA 투어 멤버인 임성재(24), 김주형(20), 이경훈(31), 김시우(27)를 비롯해 올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선수권대회 우승자 신상훈(24), KPGA 코리아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김영수(33), KPGA 코리아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3명 서요섭(26), 김비오(32), 배용준(22)이 나온다. 또 세계 랭킹 한국인 상위 3명인 김성현(24), 박상현(39), 안병훈(31)에 초청 선수 정찬민(23)까지 출전한다. 출전 선수 78명이 컷 탈락 없이 나흘간 경쟁하는 이 대회에서 PGA 투어가 예상한 파워 랭킹을 보면 매킬로이가 1위, 람이 2위로 예상됐으며 3위는 토머스다. 한국 선수로는 김주형이 7위, 임성재 12위에 올랐다. 임성재, 김주형 등은 이달 초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끝난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 이후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조조 챔피언십에 출전했다가 다시 미국 대회에 나서는 뻘뻘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다. 이 대회 한국 선수의 최고 성적은 2017년 김민휘(30)의 4위다. 지난해에는 임성재가 공동 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